

연미산에서 바라본 금강의 일출
촬영 : 신용희 기자

CONTENTS

02	公州의 어제와 오늘 앵산공원
03	웅진칼럼 「대한민국」과 「서울민국」 / 이극래
05	신년사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시의회 의장
10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아름다운 간판⑤
12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⑤ 효자 이복과 국고개 전설 / 백원철
21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⑤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 장길수
25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⑧ 공주 거리에 이 한 분 계시어 / 나태주
28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⑫ 공주박물관 자원봉사회
32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의당면 송학리(2)
40	공주의 인물 청백리 이세장 선생
42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국선도
44	시정소식
50	내고장 소식
54	미담
56	예술의 향기
60	문화원 소식

등록번호_충남 라01136(1998.6.1)

발행인_정재욱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041 · 852 · 9005, 852 · 7600

E-mail_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_http://www.culturegi.or.kr

인쇄처_공주신문사

041 · 853 · 8111



앵산공원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7년에 벚나무를 많이 심고 앵산공원(櫻山公園)이라 하였는데 1947년에 중앙공원이라 고쳐 불렀다.



1950년대의 앵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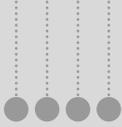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는 낭만의 장소였다.

까까머리 고등학생들과 땡기 갈래머리 여고생들의 로맨스가 곳곳에 담겨있는 공원으로 인근의 학생들 간 주먹다짐의 장소로도 유명했던 공원이다.

지금은 구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영명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그 흔적만 찾아 볼 수 있다.



중앙공원



이극래 _

- 한국문인협회 충청남도지회장
- 공주노인대학 학장
- 공주대학교 강사
- <금강FM 방송국> MC

「대한민국」과 「서울민국」

중국 <장자(莊子)>에 「독서망양(讀書亡羊)」이라는 묘한 고사가 나온다.

옛날 어느 집에서 장(藏)과 곡(穀)이라는 두 사람이 양을 치며 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은 양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웃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장이 말하기를 「땃가지를 옆에 끼고 글을 읽고 있다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그만 양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했다. 이번엔 곡이 「나는 주사위놀이를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일이 원인은 다르나, 양을 잃어버린 결과는 같다.

‘마음이 밖에 있어 도리를 잊어버리는 것’ 이나 혹은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겨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 「독서망양(讀書亡羊)」이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밝은지 한참이나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소위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아닌가 싶다. 걸핏하면 ‘국민들을 위하여……’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도 돌아서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해내는 사람들이 곧 그들이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끈한 정책을 내걸고도 막상 시행단계에 가서는 수도권규제완화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라 하겠다. 논리적으로도 이율배반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발전의 숨통을 꼬박 못하게 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지난 해 후반기에 밀어 닦친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 한파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말이 아닌데, 거기에다 경제, 사회 기반의 대부분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만 집중시키려 한다면 지방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백년대계(國家 百年大計)라는 우리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의 뿌리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성과 재능을 조화롭게 기르고 가르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도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비중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교육정책은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이나 초등 및 중등교육은 대학교육의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고, 지방교육은 서울이나 수도권교육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 어찌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이 되고 있는 인상마저 든다. 물론 한 나라의 수도라는 특성도 있어 그렇겠지만, 무언가 정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란다.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인 뿌리는 지방발전에 있는 것이요 문화적, 교육적인 뿌리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에 있다.

새해에는 '독서망양'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서울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희망과 건강 그리고 사랑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다.

선천하지우(先天下之憂) 후천하지락(後天下之樂)

공주문화원장 정재욱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민족의 영산 계룡산 영봉 동녘으로부터 서기 어린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희망과 국운융성의 여명과 함께 기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출향인사와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축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훌륭히 성취되시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공주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가장보람차고 값진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신(星辰)의 어김없는 법도에 따라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지만 금년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이 역경을 극복해 내야 내일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글로벌시대가 주는 커다란 교훈을 안겨다준 해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세계인들이 우상처럼 여겨왔던 거대의 공룡과도 같았던 미국이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을 빼놓고 세계의 경제를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여겨왔던 미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그것이 자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 경제파국을 몰고 올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인 것 입니다. 국내적으로는 10년만에 정권교체로 희망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과는 우리의 정치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

는 수준에 와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화합과 단결로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왔기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빈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해온 저력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강남지역 원도시민의 오랜 숙원 이었던 강남지역 고도지구 일부해제, 행복도시 주변지역 행위제한 완화, 탄천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백지화, 강남일원 도시가스 공급개시, 제5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 등의 긍정적인 부문과 공주시외버스터미널 대상지의 선정보류, 공주대학교의 문제로 대학에서 시민대책위 측에 형사고발한 사건이 끝내는 벌금형과 선고유예라는 판결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나 아픔은 성공과 성숙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진리처럼 우리는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또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대립과 분열, 반목과 갈등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노를 힘차게 저어나갑시다.

기축년의 금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해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십 년의 퇴보를 할 것이냐? 하는 국가의 명운이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다운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사회지도층 인사는 지도층답게 자기 본연에 위상에 맞는 언행과 도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밝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국민적 고통분담의 불행을 초래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적 자성(自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번져 있는 자만과 교태와 허영과 낭비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해이로 인하여 마침내 집단, 또는 개개인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계층 간 갈등에서 초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키거나 좌시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짊어 지어야 할 십자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발판을 이룩하여 위대한 한국인의 강인한 공동체 의식과 저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망각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국운도 때로는 정체하거나 실기를 하면 그 민족은 급기야 공전퇴보하듯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민족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끝내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실상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력히 보아왔듯이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 하여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성찰하여 광정에 충실해야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금년도가 더욱 절실한 말씀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천하지우(先天下之憂)하고 후천하지락(後天下之樂)의 공자말씀을 되새기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후에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애국적 민주시민의 자세만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신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09년 원단
공주문화원장 정재욱



공주시장 이 준 원

시민께 드리는 새해 메시지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함께 열어갈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경건한 새아침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주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동안 가꾸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개화결실(開花結實)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새해아침
공주시장 이 준 원

위기는 또다른 기회



공주시의회 의장 김 태 룡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각 가정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며, 이웃 간에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밝고 희망찬 공주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변화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 극복을 위한 강한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민의를 전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새해 아침
공주시의회의장 김 태 룡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소품으로 그린 풍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 후문 아래쪽에 핑크빛의 작고 아담한 간판이 눈에 띈다. 간판 제목은 '소품으로 그린 풍경'.

작고 네모난 간판은 핑크빛 바탕에 하얀 색깔의 글씨로 '소품으로 그린 풍경'과 달랑 전화번호(855-6585)만 있다. 처음엔 옷을 파는 곳인지 아니면 먹는 것을 파는 곳인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분홍색 간판은 제목만 보아도 이 집의 판매 아이템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제목 그대로 '소품' 즉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 예쁜 거울이나 작은 액자, 또는 인형들과 마른꽃바구니들이 작은 가게 안에 빼곡하게 정리돼 있다. 또는 누구에겐가 마음의 정성을 담아 전해줄 '작고 아담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이 집의 주인공인 소품들은 "나 좀 봐 주세요"라며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다.

이 집의 소품들은 모두 다 작은 것들뿐이다. 큰 것이라야 마른 꽃을 한 움큼 담을 수 있는 화병 정도다.

"저의 집 주인공(물건)들이 아기자기하고 모두가 다 작고 소박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제 주인을 찾아 집안 어느 한 귀퉁이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제빛을 발하게 되죠. 그리고 간판을 크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간판



이 크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라며 소박한 미소를 띠는 오국규(41)·박순규(36)씨 부부.

가게는 부인 박순규씨가 경영을 하고 있고 건설업을 하는 남편은 어린 아이들(초등 6, 4년) 때문에 가끔 임무 교대도 해 준다고.

부부는 “고객은 30대 주부에서 60대 까지 폭넓은 층을 이루고 있죠.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이 집을 찾게 된다”며 “가끔 주인공(물건)을 배달할 때가 있는데 ‘돈’으로 치장한 인테리어보다는 작은 소품이지만 본인의 취향과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게 인테리어를 꾸밀 때 그 주인의 안목이 돋보인다”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비결도 살짝 곁들인다.

/신용희 명예기자



〈간판상식〉

○좋은 간판이란?

1) 요란하지 않아야 한다.

간판이 너무 많거나 요란하면 오히려 시선을 혼란하게 만든다. 간판이 두 개면 두 번 확인하게 되고 네 개면 네 번 확인하게 된다. 간판의 불빛이 너무 세거나 쉼 없이 점멸하면 그만큼 사람의 눈은 빨리 피곤해진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간판보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객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판을 요란하게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 과시형으로 만들면 소비자가 부담스러워 한다.
- 시각적 질서가 없는 요란함은 현기증을 일으킨다.
- 많이 만들어 달면 보행자의 시야를 혼란에 빠뜨린다.

2)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간판이 요란하거나 크다고 해서 고객들이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들은 아름답고 걷기 편한 거리를 더 많이 기억한다. 쾌적한 거리를 기억시키고 인상적인 건물들을 강조할 때 고객들은 비로소 그 중에서 당신 가게를 찾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다.



- ① 좋은 간판은 소박하면서도 친근감을 준다.
- ② 투박한 문자보다 인상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사례다.

효자 이복(孝子 李福)과 국고개 전설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최근에 공주시는 공주시를 아시아권의 국제적 역사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 주요사업 중에는 국고개 지역을 공주의 대표 역사가로(歷史街路)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국고개와 관련한 전설과 그 주인공인 이복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이복과 효자비에 대하여

이복에 대한 기록은 옛 지리도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1481~1530)의 공주목(公州牧)에서 “효자 고려 이복(李福)은 본주 아전이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여지도서』(輿地圖書 : 1759~1765), 『호구총수』(戶口總數 : 1789), 『공산지』(公山誌 : 1859) 등에도 모두 “고려 이복은 주의 아전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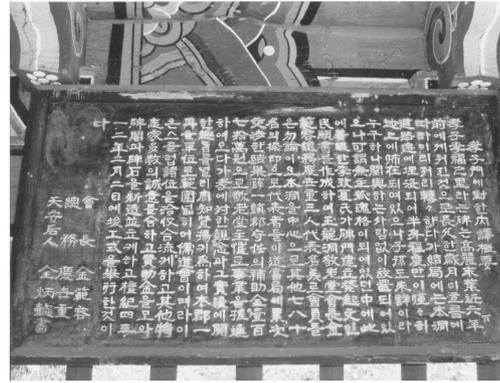
그리고 이복의 비석에 대하여는,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그 전에는 옥룡동 비선거리 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78년 효를 선양한다는 취지 아래 이치하(李致夏) 씨를 발기인으로 하여 옥룡동 노인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행적비를 건립하고, 이듬해인 1979년에 비각을 지었다. 현재 정려비각은 정·측면 각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비각 안에는 구비와 신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구 비석은 화강암 재질로 석주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매끈하게 다듬은 전면에는 효자 이복의 마을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공주시지, 2002>” 라고 소개하고 있다.

2. 기록으로 보는 국고개 전설과 이복의 효성

이복과 관련된 국고개 전설과 이복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를 옛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듯하다. 대체로 최근에 정리된 기록물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되는데, 이는 ‘국고개’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구전(口傳)되어 오던 것을 근



효자 이복비각(옥룡동 동사무소 우측 언덕)



〈현판사진〉

孝子門에 대한 內繹概要

孝子李福之里 라는 碑는 高麗末葉 近六十年前에 세워진 것으로 長久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리 저리 轉轉하다가 結局에는 本洞 道路邊에 埋沒되어 半身程度 만이 僅僅히 地上에 佈在되어 있으나 子孫도 末詳이라 누구하나 關與하는 사람없이 放置되어 있으니 可謂無主孤魂格이 되어 있던 中에 此에 着眼한 李致夏氏가 碑門建立發起文인 民願書를 作成하여 玉龍洞 敬老堂 會長 金範容 總務 慶世重 三人代表 名義로 會員들은 勿論이요 本洞을 中心으로 其他 七八十名의 捺印으로 代表者들이 道當局에 累次交涉한 結果 薛一鎮 君守任의 補助金壹白七拾萬圓으로 敬老堂 主催로 事業을 推進하여 오다가 孝에 대한 觀念과 그 實績에 關한 趣旨를 널리 周知讚揚키 爲하여 本郡一丹을 單位로 範圍 넓히어 儒道會이며 라이온스 클럽 諸位를 洽收合流케 하고 其他 持志家 多數의 誠意를 승하고 贊助金을 모아 碑閣과 碑石을 新造並立케 하고 禮紀 四三一二년에 竣工式을 舉行한 것이다

會長 金範容
總務 慶世中
天安后人 金炳燧 書

〈이복 비각안에 걸린 현판의 내용〉

래에 채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국고개와 관련하여 그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이복이 눈먼 홀어머니를 위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얻어 온 국을 샅었다고 해서 국고개라고 하고 또 ‘갱경골(羹傾谷)’이라고 한다. (공주시지, 2002)

② 효자 이복이 어머니 봉양을 위해 국을 얻어 품에 안고 넘어가다가 넘어져 국이 쏟아져서 국고개 라고 한다. (공주지명지, 1997)

③ 백성들을 보살피달라고 고을 수령에게 건의하였다가 파직당한 이복은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자 매일 같이 읍내에서 밥과 국을 얻어다가 봉양했다. 그 효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국을 끓이면 이복의 어머니 뭍으로 한 그릇씩 따로 떠 놓았다. 지금 갯경골, 국고개 등이 이복이 효도하기 위해 넘어 다니던 고개로서 전해 오는 지명이다. (백제신문 <http://www.bjnews.co.kr>)

다음으로 이복의 남다른 효행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을 관청에서 일을 하던 이복이 비행을 일삼는 수령에게 직언을 하였다가 쫓겨나게 되자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 그해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잉어의 피를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 하였다.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였으나 잡히지 않았는데, 천지신명께 빌어 구멍으로 잉어가 튀어나와 어머니 병을 완쾌시킬 수 있었다. 훗날 왕에게 알려져 관원으로 복직이 되고 효자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공주지명지, 1997)

② 어느 해 겨울 앞 못 보시는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복을 도우려 애썼다. 어머니의 병은 잉어피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였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빙판을 깨고 낚시를 하였으나 잡히지 않았다. 천지신명께 빌었더니 잉어 한 마리가 튀어 나왔다. 그 잉어 피를 먹고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었다. 이복의 효성이 알려져 포상이 내려지고 효자비가 세워졌다. (백제신문, <http://www.bjnews.co.kr>)

3. 갯경골의 한약방과 새로운 국고개 전설

일제강점시 강경골(講經洞 : 갯경골·羹傾洞의 딴 이름)에는 회춘당 한약방(回春堂 漢藥房)이 있었다. 이 한약방의 주인은 창원(蒼遠) 김택(金澤, 1898~1954)이란 분이였다. 창원은 1938년 홍성에서 공주로 이거하여 갯경골(전 공주 박물관 부근 동네)에 한약방을 개업하여, 이로써 생업의 방편으로 삼았는데, 이 약방의 사랑방에는 당시 공주 지역에 거주하는 수구적 인사들이 회집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며 배일의식을 소유한 인물들이었으니, 유전(柳田), 김은동(金殷東, 1888~1945), 杏海 김노동(金魯東, 1899~1958), 김명동(金



새로 만들어 세운 비와 옛 비 (비각안에 있다)

孝子 李福 行蹟碑

때는 高麗時代의 末葉이었다. 李福이란 분이 이 고장 玉龍洞에서 偏母를 모시고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돕는 한편 求乞을 해가며 自身은 굶을 지라도 母親 奉養만은 最善을 다 하였다. 至今도 公州邑內에 羹傾골이란 地名이 남아 있다. 이는 李福先生이 母親을 위하여 국을 얻어서 歸家하던 途中 넘어지며 엎질렀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러한 點에서도 그의 孝誠의 一端을 엿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母親이 갑자기 病席에서 呻吟하게 되었다. 그러나 白藥이 無效였다. 다만 잉어 피를 腹用하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며칠을 두고 天地神明께 祈禱를 올린 다음 錦江옆 나가 보았다. 嚴冬雪寒인지라 물이 굳게 얼어붙어 失望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福先生은 무릎을 꿇고 合掌再拜한 뒤 氷板을 깨고 뉘시를 드리우니 至誠이면 感天인지라 神奇하게도 큰 잉어가 잡히는 것이었다. 이로써 母親病患을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孝道를 極盡히 하여 萬人의 推仰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當時에 세워진 孝子 李福之里란 비석이 至今도 傳해 오고 있다. 歲月은 흘러서 六百餘年이 지났으나 李福先生을 기리는 소리는 이제도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을 알게 된 薛一鎭 公州郡守는 物心兩面에 亘하여 積極的인 援手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많은 人士들의 協贊이 있어 마침내 이 碑石을 세우게 된 것이다. 세로 建立된 碑閣속에 舊碑石과 아울러 永世에 傳해질 것이다. 옛날부터 孝는 百行之源이라고 하였다. 이는 家庭과 社會 全般에 걸친 平和造成의 原動力임을 뜻한 말이라고 하겠다. 古來로 우리 民族은 倫理觀念의 뛰어난 點에서 世界의 으뜸이 아닐 수 없다. 李福先生의 例에서도 이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孝行은 모든 사람의 龜鑑이 되어 길이 이 땅에 남을 것이다.

西紀 一九七八年 十二月 六日
文學博士 林憲道 撰
完山 李公權 書
李福先生碑 建立推進會 세움

〈새로 세운 비석의 비문〉

鳴東)형제와 긍당(肯堂) 이규헌(李圭憲, 1896~1976), 의재(毅齋) 성구용(成九鏞, 1996~1986), 일연(一鸞) 신현상(1905~1950?) 등으로서 한결같이 일제가 강압하는 창씨개명과 삭발색의(削髮色衣 : 단발령을 내려 머리를 깎고 흰옷을 못입게 함)를 거부함은 물론, 독립운동 지사들과 교결(交結)하여 조국광복운동에 참여하는가 하면, 전통학문의 강학을 통해 후학들에게 민족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던 지사(志士)들이었다.

그 때 이 한약방의 사랑방에는 위의 인물들 뿐 아니라 공주의 고로(古老)들도 회집하였으므로, 자연히 이 지역에 고로상전(古老相傳)을 통해 전래 되는 갖가지의 구전(口傳)도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던 것인데, 이 때 국고개 전설도 갱경골이라는 색다른 지명과 함께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언급되었던 국고개 전설의 내용은 기존의 것과 많이 다른 점에서 주목되는 바, 그 개략은 다음과 같다.

고려 말에 흠어미와 이복이 갱경골(전 공주박물관 부근 동네)에 살았는데, 가난한 흠어미는 늘 음식을 구걸해서 이복을 먹였다. 그날도 국고개 언덕(현재도 국고개라 불림) 즙의 민가에서 국을 얻어서 서둘러 아들 이복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미가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도 늦었기에 배가 고프은 이복은 인기척을 듣고서 급히 문을 열어젖히고 몸을 드러내었다. 이때 어미는 이복이 어미의 늦음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움찔하고 놀라 넘어지면서 국을 쏟고 말았다. 어미는 아들이 또 실수한 자신에게 못된 행패를 부릴까 두려워 찢찢매매면서 극구 변명과 사과하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아들 이복은 흠어미에게 응석을 부리고, 걸핏하면 대들며 어미를 못살게 구는 못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아들 이복은, 어미가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나를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하고 깨닫고서, 어머니를 붙들고 모자가 함께 통곡하였다.

이 뒤로부터는 이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어미를 대신해서 자신이 음식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효도를 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놀랍게 달라져 효성이 지극해진 이복을 두고 이웃이 모두 칭찬하였다. 이 때 어미가 국을 얻어온 곳을 ‘국고개’라 부르고, 국을 엮은 곳을 갱경골(羹傾洞 : 羹은<국 갱>, 傾은<기울일 경>의 한자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창원의 아들인 경은(耕隱) 김순(金洵, 1922~2006, 전 공주향교 전교)



웅이 전해 들었던 것으로써, 이를 경운의 생질인 이성우(李性雨, 1945~) 씨가 최근에 필자에게 제보한 것임)

이렇게 볼 때 위의 전설은 기존의 전설과 아주 다름을 알 수 있다. 국을 얻어 온 사람이 이복이 아니고 어미이며, 이복은 처음엔 불효가 심한 못된 아들이었다가 국을 쏜 사건을 계기로 효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스토리가 극적인 반전을 지님으로서 훨씬 흥미롭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고 볼 수 있다.

4. 이복을 노래한 한시(漢詩)

① 고려 효자 이복의 비어

길가에 세워져 이제까지 몇 해나 지냈더니
 석자도 채 못 되는 한 조각의 빗돌
 못생긴 돌에 새긴 글자도 초라하네
 뚜렷한 글씨 모양 읽을 수 있으니
 사람도 스스로 아끼어 오래도록 보존했네
 꿀 베는 아이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함부로 대했다간 화를 당한다 조심하네
 오래된 물건은 신령한 기운이 깃든다 하나
 반드시 이 돌이 영험하여 의식이 있음은 아니라네

高麗孝子李福碑
 豎在路傍今幾時
 未滿三尺一片石
 石頑工拙刻亦媿
 辨得字形尙可讀
 人自愛護久能支
 樵牧亦且不敢慢
 慢或致殃相戒兒
 物久則神理或然
 末心此石靈有知

② 당시에 유래된 내용을 살펴보면

참된 효도는 타고난 바탕에서 비롯되었네
 얼음을 가르고 잉어를 얻어 어미 병을 고쳤으니
 중국의 왕상과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었네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두 말이 없게 하니
 한결같은 여론이 여기에 모아졌다네
 차마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참된 뜻이 있으니
 착한 덕을 좋아함은 모두가 지닌 본심이라네
 도리를 지킴은 본래 예와 이제가 없어서
 오래도록 지켜내고 그럴수록 기이하게 된다네

究厥當初所由來
 是其眞孝出天資
 剖氷得魚救母病
 異代王祥同心期
 觀感於人無間言
 公共輿論寓於斯
 不忍泯沒眞情在
 好是懿德是秉彝
 秉彝元無古今異
 所以能久久益奇

※왕상(王祥): 중국 서진(西晉)시대의 왕상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였다.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함에 왕상은 얼음위에 누워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서, 얼음을 깨고 잉어 두 마리를 얻었다고 함.

<p>③ 아아! 저 이곳저곳 널린 송덕비들이여 몇 사람이나 당당하게 노래에 올라 전할 만한가 참된 업적이 있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인데 말세에 거짓이 많으니 풍속이 어찌 이와 같을고! 권세가들 착취 일삼고 이름조차 도둑질하여 읍 마을 길가에 울타리처럼 세워 놓았다네 용트림 머리와 거북 돌 바침 거창하게 새기고 화려하고 장대하게 멋대로 만들었다네 권세와 지위 있을 때 누가 감히 모욕할까만 잠간 사이 권세 없어지면 서로들 욕하리라 다음으로 제방이나 다리 놓는데 이용되리니 가련하게도 그 이름 남들의 비웃음 사리라 실속 없는 헛된 이름 본래 이러한데도 억지로 꾸미려하니 진실로 어리석구나</p>	<p>吁彼在在頌功德 幾人堂堂騰歌詞 事有真蹟自可見 末世滋僞風何其 豪強掊克盜盛名 邑里街上列成籬 螭首龜趺極其制 既侈且壯任自爲 權位當年誰敢侮 須臾勢去辱相隨 次第利用堤及校 可憐成績增人嗤 無實許名本如許 逕庭營爲誠亦癡</p>
--	---

<p>④ 자! 오늘날 이 비의 온전함을 보아라 하늘의 뜻은 그 사사로움 용납지 않는다네 어찌 세상 사람들 모두는 살피지 않고서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가 비를 어루만지며 서 있노라니 감회가 있어 풍속을 경계하는 뜻으로 이 시를 짓노라</p>	<p>試看今日此石完 天意終難容其私 胡乃世人不察 護相欺人又自欺 摩挲佇立因有感 警俗尙堪題此詩</p> <p>〈肯堂集, 券二, 李福碑〉</p>
--	--

위의 한시는 긍당(肯堂) 이규현(李圭憲 1896~1976) 공의 장편고시이다.(긍당은 초려 이유태 선생의 10대손이며 항일학자였던 성암 이철영 선생의 從子로서, 공주 상왕동 증동골에 서당을 열어 후왕 양성에 평생을 바쳤다.)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 거리와 작가의 비판적 담론을 담기에 적합한 형식이며 서사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편의상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면 ①·②에서는 비의 현존모습과 효행에 대하여 찬양하는 한편, ③·④에서는 헛된 이름을 추구하는 후대의 어리석은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위의 시는 1945~1950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고 후손은 증언하고 있다) 특히 ①의 내용을 보면, 비록 초라한 비석이지만 일반 민중들의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광복직후 비선



거리에서 있었던 옛 비는 도랑가에 반쯤 묻혀 있었는데, 대개 금줄이 쳐져 있거나 황토 흙이 둘레에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기이한 행적이 깃들어 있고 또 오래 된 물건이기에 영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5. 국고개 전설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그 하나는 첫째 기존의 기록에서는 이복의 신분에 대하여 한결같이 ‘아전’ 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밖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집안이 극히 가난하였던 것으로 보아 본



〈옛 비의 앞면〉

래 아전의 집안은 아니었고, 이복이 근면 성실한 인물이었기에 뒤에 고을의 아전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둘째로, 비가 세워진 연대이다. 으레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복이 고려 말의 인물이라 해서 그렇게 단정해 버릴 수는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화강암 재질의 옛비가 비각도 없이 600년이 넘도록 풍우에 마모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흔히 ‘정려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역시 조정에서 언제 정려 표창을 내려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표창 받은 근거가 없다면 ‘정려비’ 라는 용어를 임의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비의 성격에 대해서다. 비석에 새겨진 글이 “高麗孝者李福之里”라고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 효자 이복이 살았던 ‘마을’ 임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문으로만 본다면 옛 비는 효자 이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그가 살았던 마을에 비중을 둔 것으로, 마을의 표지석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으레 비석 뒷면에 그 내력이나 해당 인물과 관련한 사적을 새겨 놓는 법인데, 이 비의 경우 전혀 없는 점 등이 또한 이를 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비는 후대 어느 때쯤에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설과 관련하여 붙여진 지명과 또 전설자체 스토리의 구성 형태이다.

첫째, 국고개와 갯경골이 구분 없이 혼동되어 불리워지는 문제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고개와 갯경골이 동일한 장소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에 의하면, 국고개와 갯경골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 국고개는 옥룡동에서 공주사거리로 올라가는 고개이고, 갯경골은 현 공주역사 박물관(구 공주박물관) 주위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다. 곧 국을 얻은 고개가 국고개이고 국을 옆지른 고개가 갯경골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명과 연관지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국을 얻어 오고 또 옆지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문헌 기록에는 이복이 눈먼 흠어미를 봉양하기 위해 국을 얻어오다가 옆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전설이 구전되어 오고 있었음을 앞에서 알게 되었다. 앞서 한약방에서 거론된 전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복의 어머니가 이복을 위해 국을 얻어 오다가 넘어지면서 옆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불효하였던 이복이 개과천선해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나, 극적인 반전이 있는 후자의 내용이 보다 더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다.



〈새로 세운 비의 뒷면〉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5)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I. 땅이름 속에 살아있는 옛 터

7. 정자(터)와 땅이름(2)

2) '박정자'는 사람이름인가?

1970년대에 '영자의 전성시대'란 영화가 있었다. 영화 제목에 영자란 이름이 나올 정도로 당시의 여자 이름에 '자' 자 돌림의 이름이 많았었다. 즉, '영자, 순자, 형자, 정자' 등의 이름이 대표적이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박정자'를 치면 연극배우 박정자를 비롯하여, 판소리 소리꾼 박정자(박송희) 등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박정자란 땅이름을 접하면 우선 사람이름을 연상하며, 그 땅이름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박정자는 정자이름이 땅이름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 위치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로 공주



박정자 삼거리

에서 대전방향으로 가다가 동학사로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이곳을 흔히 박정자 삼거리라 부른다.

이곳에는 길 서쪽에 시 보호수인 느티나무 2 그루와 '박정자 유래비'가 있다. 보호수 안내판이 두 개 있는데 서로 약간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 그루는 수령 300년이 넘는 수목으로 둘레 5.3m, 높이가 27m이며, 한 그루는 높이나 둘레는 비슷하며, 수령 270년이 넘는 오래된 나무들이다.

▲ 박정자 삼거리

느티나무와 함께 서 있는 박정자 유래비에 의하면 ‘박정자’ 땅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제석동(帝石洞) 뒷산에는 밀양 박씨 선대 박수문(朴守文)의 3대 묘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박씨 3대 묘소는 범과 용의 형세를 갖춘 자리이나 앞쪽이 공허한 것이 큰 결함이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어 허점을 보강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오늘 하늘을 덮는 거목으로 자라 이곳을 지나는 길손의 심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은 박씨들이 정자나무를 심었다 하여 이곳 지명을 박정자(朴亭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1993년 공주군수인 이병하가 세운 표지판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공주에서 유성(대전)으로 가려면 박정자 삼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 고개가 삼재고개이다. 즉 삼재고개 서쪽 아래에 박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고개 부근에 도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혼자 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곳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기다렸다가 함께 넘어갔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 나무는 정자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씨가 심은 정자나무가 있는 곳이라 해서 박정자(朴亭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류정자(柳亭子)와 땅이름

류정자는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297번지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 나무이다.



류정자와 유래비



류정자 유래비

이곳에는 팽나무와 그 옆에 유래비가 있다.

그 유래비에 의하면 “1908년 3월 10일 문화 류씨 후인 류백원, 상서1구 이곳에 정자나무를 식수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심어진 지가 지금부터 꼭 100년전의 일이다.

정자나무는 팽나무이며, 수령은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심은 지 100년이 되었지만 몇 년생을 심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인지 안내판이 세 개 있는데 모두 수령을 달리하고 있다.

3) 인조임금과 정자(땅이름)

백제 시대 이후 잠시라도 공주에 머문 임금은 고려 현종과 조선의 인조 임금이다.

고려 현종은 즉위 2년(1011년) 1월에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 공주로 남행한 적이 있다.

조선의 인조 임금은 이괄의 난을 피하여 1624년에 잠시 공주에 머물렀다. 인조 임금이 공주로 파천하면서 몇 가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 정자와 관련된 것도 두 개나 된다. 쌍수정과 석송정이다.

▲ 쌍수정(雙樹亭)

공산성은 남문인 진남루(鎭南樓)와 북문인 공북루(拱北樓) 선을 기준으로 동·서 두 봉우리로 나눌 수 있다. 쌍수정은 서쪽 봉우리에 위치해 있다.

쌍수정이 있는 자리는 그 옛날 인조 시대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한다. 인조는 이 나무에 기대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쌍수(雙樹)에 기대어 왕도를 걱정하던 인조가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기대었던 쌍수에 통훈대부(通訓大夫)라는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산성이 쌍수산성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영조 때(1734) 이수항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나무가 없어진 자리에 정자를 세웠는



쌍수정과 쌍수정 사적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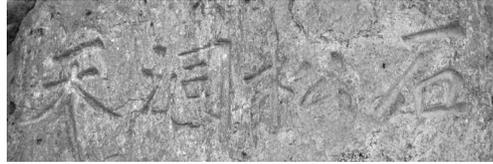
데 창건 당시 정자의 이름은 삼가정(三架亭)이었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건하였으며, 1903년(광무 7)에 수축하였으며, 지금의 건물은 1970년 전체적으로 해체 복원하였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쌍수정 동쪽 아래에 쌍수정 사적비(충남유형문화재 35)가 있다. 이 비는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이곳에 머물렀던 10일간(인조 2년 2월 13 ~ 23)을 기록한 비석이다. 비문은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신희이 짓고, 글씨는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이 썼다.

● 석송정(石松亭)

정한천의 하구에서 10km 쯤 상류, 하천 서쪽에 정안면 석송리가 있다. 이 마을 남쪽, 23번 국도 변 산모퉁이에 석송정이 있다. 마을 이름인 ‘석송리’는 석송정이 있는 곳이란 뜻이다. 석송정은 인조가 이괄의 난(1624)을 피해 공주로 내려올 때, 잠시 쉬어 갔던 곳



인조의 친필로 알려진 석송동천



석송정

에 지방 유림들이 기념으로 세운 정자이다. 오랜 세월 속에 옛날 건물은 없어지고, 1985년 공주시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유림의 간청을 들어 석동동천(石松洞天)이란 친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를 정자 옆 바위에 새겨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나 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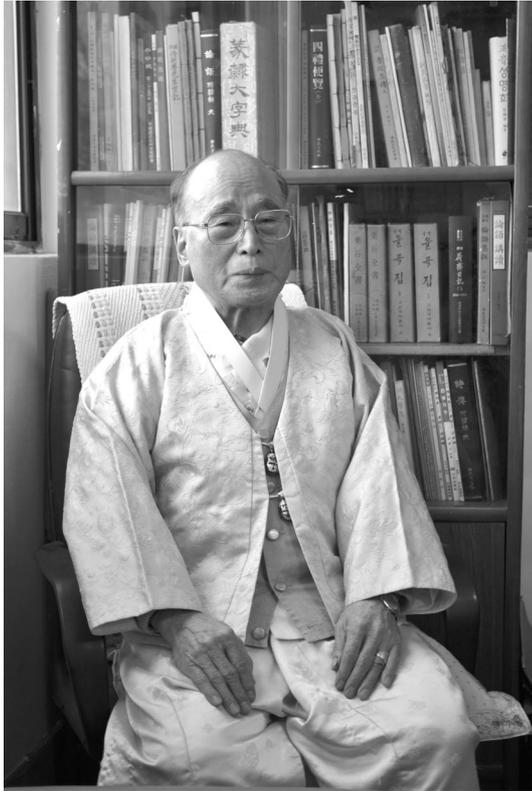
- 시인
-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 충남 시인협회 회장

공주 거리에 이 한 분 계시어

- 금암(競菴) 김연뢰(金淵雷) 선생

공주 시내를 다니노라면 가끔 한복 차림의 남자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다.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분명 옛 풍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 있는가보다. 대개 그분들 모습을 보면 예스런 생활을 상당히 고집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더러는 상투차림 그대로이고 백색 두루마기차림일 때도 있고 갓을 쓰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금은 억지스러운 한복차림이 아니라 현대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한복차림을 하고 있는 남자 어른을 만날 때도 있다. 그분은 특별한 날만 한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렇게 한복차림인 분이다. 연세 드신 남자어른에게 ‘곱다’란 표현이 똥하긴 하지만 참 고운 모습으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김연뢰 선생이다.

김연뢰(金淵雷) 선생은 오늘날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인데도 아직도 구 공주 중앙통 거리에서 서예학원을 열고 있는 현역이시다. 공주의 어린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붓글씨와 한문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만 그것을 다른 학원의 그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이분이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서예와 붓글씨와 한문을 가르치는 건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생활태도와 삶의 방식, 인격수양의 한 방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화된 서당교육이라고나 할까. 공주 사람 가운데 예의범절을 알고 옛날 학문을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이분한테 한 차례라도 묻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서예학원의 원장이면서 공주 사람들의 스승 격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이라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은 상당기간 (15년 동안이나) 공주대학교의 고전연구회에서 지도강사를 맡아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서삼경과 고문진보 등 고전을 강의해 왔을 뿐더러 백제문화제 한시백일장 심사(선고)위원의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하기도 했다.

좋은 것은 스스로 소문내지 않아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고 높은 학문 또한 그 자신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고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분의 학문의 깊이는 실로 공주에서만 아니라 충청권 내지는 호서지방에서 제일이다.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퍼져

오늘날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있던 문화재청이 대전으로 옮긴 뒤로부터라고 한다. 주로 문화재청이 보물로 책정한 각종 자료를 번역하고 표점(標點, 한자로 된 문장을 구절로 끊어 읽는 표시)을 해주는 일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는 이미 중앙의 저명한 학자들이 해놓은 번역 자료를 받아 오류를 바로잡고 교열하고 감수하는 일도 있다 한다. 그렇게 하기를 5, 6년이고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번역한 문헌을 최종적으로 교열해주는 일도 맡아서 했다 한다.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분이런 느낌이 든다. 과거 우리들의 문화유산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안 된 일이지만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된 것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 읽어내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다. 공주 거리에 오직 이 한 분이 계시어 대한민국 전체,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장을 풀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다니 이 한 분으로 하여 공주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가득하고 빛나지 않는가 말이다.

선생의 호는 공암(兢菴). 그리고 자는 경천(敬天). 나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이 어른을 공암 선생이라 부른다. 왜 호가 공암이나 여쭙면 그 공(兢)자가 '전전공공할 공'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생을 전전공공하면서 살라는 뜻인데 조심해서 아름답게 살라는 반어적 표현인 듯싶다. 한번 찾아뵈어야지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었다. 하기는 교직에 있을 때는 정년을 하게 되면 이분에게 가서 『논어』를 배우리라 마음먹은 바도 있었다.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이 12월 30일, 2008년이 가기 전에 선생을 찾아뵈올 요량으로 집을 나섰다. 설핏설핏 눈발이 날리는 날이었다. 그동안 선생의 학원이 자리를 옮겨 있었다. 먼저는 3층이었는데 이번에는 2층. 건물로 깨끗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넓은 강당 같은 교실에 어린 학생들과 어른 두엇이 글씨를 쓰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선생이 내가 온 기척을 알고 사무실로 안내한다. 연세는 드셨지만 언제 봐도 맑고도 온화한 안색이 사람을 그럴 수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어른이다.

공암 선생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우선 선생은 내가 공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동직원이었던 김영목 교사의 부친으로 보였던 분이다. 김영목 교사는 지금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으면서 이름 있는 서예가이기도 하다. 부친인 공암 선생이 지어준 호가 소헌(召軒). 부를 소(召)에 마루 헌(軒). 부르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의 마루쯤 있으라, 해서 아드님의 호를 그렇게 지었을까.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야말로 믿음(信)의 거리요 사랑(愛)의 거리가 아닐까. 나는 그동안 공암 선생에게 여러 차례 글로서 빛(글빛)을 진 일이 있다. 바로 고향의 선조들 비문을 받고 또 글씨를 받는 일이 그것이었다.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은 귀찮다 내색치 않고 그 일들을 다 맡아 해결해 주었을 뿐더러 차근차근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선생의 아드님인 소헌은 또 내가 가친의 고희연을 맞아 병풍 한 개를 만들어 드리고자 할 때 내가 지은 시조를 단아하고 힘찬 한글체로 써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공암 선생 부자분으로부터 두루 은택을 입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수인사를 차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선생께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렸다. 실은 그냥 인사차로 온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 인터뷰 차 왔다는 것. 왜

한학을 했나 하는 것과 오늘날 세상을 보며 느끼는 점과 인생에 대한 해답은 없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선생의 고향은 공주가 아닌 아산. 1930년 출생. 선고장(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독실한 한학자셨는데 배일사상(排日思想)이 강해서 끝내 창씨개명(創氏改名)에 따르지 않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斷髮令)에도 동참하지 않으셨다 한다. 물론 일본제국주의식 교육 제도에도 반대하여 4형제 모두를 신식학교에 보내지 않고 모두 집에 공부시켰다 한다. 일종의 가학(家學)이었던 셈이다. 선생이 공주로 이사 온 것은 15세 때. 일가족이 공주의 유구로 옮겨와 자리를 잡고 연중이란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서당을 여셨다 한다. 그 때 가까운 학교의 초등학교 교장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변하는 세상을 살려면 아무래도 신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여 아우님 세분은 학교교육을 받았지만 선생만은 이미 때가 늦어 한학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말 올곧은 성리학자였던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291) 선생의 학통을 잇는 학자로 남는다.

선생께 다시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한다. ‘안분낙천(安分樂天)’ —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며 낙천적으로 세상을 산다. 평생을 두고 외우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살면 사람의 기상도 좋아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일, 육신의 건강도 그 실에 있어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다. 실상 나도 호된 병원 생활을 통해 얻은 화두가 긍정적인 사고요 그 삶이 아니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끝내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큰 병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것이었다. 선생의 말씀을 듣다보니 언뜻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에 알려진 바대로 피천득 선생은 장수와 명예를 고루 누린 분인데 평생 사모님을 과분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고 자녀들을 과분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한다. 그랬더니 아내나 자식들도 당신을 과분한 남편, 과분한 아버지로 받아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이 분수를 알고 자기의 삶을 공손하게 지키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을 여쭙었다. ‘천하태평시(天下太平時)엔 여천동선(與天同善)하고 천하란시(天下亂時)엔 독선기신(獨善其身)하라’ — 온 세상이 태평한 시절에는 천하와 더불어 선함을 펼치고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절에는 그 자신 혼자만이라도 선을 간직하고 실천하라. 그렇구나. 진정 그럴 것이구나. 어찌 세상이 어지럽다고 나까지 나서서 큰소리로 떠들고 어지러운 발걸음으로 다닐까보냐. 선생은 마지막으로 『명심보감』 정기편(正己篇)에도 있고 『논어』 계씨편(季氏篇)에도 나오는 한 구절을 귀뜸해준다. ‘사람(군자)은 일생에 세 가지 조심할 일이 있다. 젊어서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때니 색(이성)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장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혈기가 한참 뻗칠 때니 남과 다투는 일을 조심해야 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孔子曰 君子有三戒하니 少之時에 血氣未定이라 戒之在色이오, 及其壯也하야 血氣方剛이라 戒之在鬪오 及其老也하야 血氣既衰하니 戒之在得이니라. — 민음사 판, 金種武 역 『論語新解』 참조) 아, 이 말씀 속에 일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구나. 나이 들면 혈기가 약해져서 욕신의 안일함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욕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의 삶의 지혜구나.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동서양 성현들의 말씀 속에 종교의 경전 속에 이미 들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허덕이며 살고 있을 뿐이다.

선생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법 오래 계속되었다. 아직도 학원 쪽에서는 학생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서둘러 선생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선생의 사무실을 물러나왔다. 선생은 문을 열고 층계참까지 나와 정중하게 손님을 배웅해주었다.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씀만으로도 이 쓸쓸한 겨울날 하루가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고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가져본다.

2008.12.30



박물관 관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국립공주박물관 자원봉사회

이번호에는 국립공주 박물관 자원봉사자회를 소개 합니다.

공주의 자랑이기도 한 국립 박물관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부터 백제 문화재를 비롯한 우리 고장의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주 박물관 자원봉사자회의 운영목적을 보면 이런 문화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충남, 공주 지역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며 육성하는데 있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문화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킴으로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첫째는 상설전시관 안내입니다

박물관 관람객이 요청할 경우 전시실 안내를 지원해 주며, 30명 이내의 관람객과 학생 단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의 안내는 매일 10~16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재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객들에게 체험교구재의 이용방법과 체험활동을 도와줍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대우를 보면

1.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월 1회 주기적인 교육과 봉사자간 자체



자원봉사자의 전시 안내 활동



자원봉사자의 전시 안내 활동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 공.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문화 기관과 유적지 답사를 제공합니다
3. 박물관의 간행자료(보고서, 도록)를 제공합니다.
4. 예산 범위 내에서 중식과 교통비를 지원 합니다.
5. 자원봉사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6. 유니폼 및 명찰을 제공합니다.
7. 우수 자원봉사자를 포상합니다.

현재 공주 박물관 자원봉사자회의 회장님은 황규형 님이 수고하시며, 30여명의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15명이고, 모집 기간은 2009년 2월 16일~21일까지입니다. 교육기간은 2009년 3월 2일~4월 6일까지(주1회, 총 6회) 실시합니다.

위와 같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5월 6일부터 전시실 안내, 우리 문화 체험실, 도서실운영 등 각 분야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 고장에 자랑스런 봉사자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보람 있는 봉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김춘원 명예기자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자원봉사자 정기답사

의당면 송학리(2)



- 지리적 여건과 지명의 유래
- 충신(忠臣) 유지걸(柳智傑)
-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어른 유기량
- 몸티의 향나무
- 마을 신앙의 집성촌 송학리
- 송학의 두레
-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 지금도 사용되는 들말의 동네 샘
- 신행정복합도시 주변지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마을 신앙의 집성촌 송학리

송학리에는 참으로 많은 마을 신앙이 존재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자연마을별로 행해졌던 마을 대동신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들말 : 장승제, 거리제, 샘고사, 농기고사
2. 학미 : 거리제
3. 몸티 : 향나무고사, 농기고사
4. 은곡 : 농기고사
5. 구암 : 산신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마을에서는 다섯 개의 작은 마을에서 10개의 대동제례가 행해졌으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올려지는 고사는 들말의 장승제와 농기고사, 몸티의 향나무 고사와 농기고사, 은곡의 농기고사가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기록과 같다.

■ 들말 장승제

들말은 송학1리 중심에 있는 송학의 본동(本洞)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들말은 산줄기가 양팔로 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숨겨진 곳에 들판이 있다 하여 들말로 불리는 마을인데 마을 어귀 좌우에는 아주 소박한 돌장승이 지

키고 있다.

장승백이의 모습도 편안하다. 천하대장군은 아름답리 참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고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작은 계단을 쌓고 제사를 모실 공간을 확보하여 다듬었지만 얼핏 지나치면 장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자연스럽다. 지하여장군의 터는 십수 년 전에 심은 느티나무 정자 아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가까이 지나치면서도 장승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만하다.

장승제가 올려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농기 모시기와 유사 선정 정월 초사흘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장승제를 지낼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로 농기를 세우게 하며 개인의 생기복덕을 가려 볼 줄 아는 노인과 대동계장(大同契長)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남자 중 결혼을 한 호주의 당해년도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가장 길(吉)한 사람을 유사로 정한다.

정해진 유사는 동네샘물로 목욕재개하고 집안에 금줄을 치고 문밖출입을 삼가며 불길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례를 올리는 정월 열나흘까지 근신(勤愼)한다.



송학리 입구의 석장승 2기



2) 동네샘 소제(掃除) 및 새물 받기 정월 초이레가 되면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모여 고(告)풍장을 치고 나가 들말의 마을 중심에 있는 동네샘 물을 바닥이 드러나도록 펴고 새물을 받는다. 유사는 매일 새벽에 다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새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 먹고 세수를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3) 제주(祭酒) 담기 음력 정월 초나흘에서 초이레 사이 하루를 택하여 마을에서 부정이 들지 않은 여인들 2~3

명을 선정, 동네샘물을 길어다가 대동제에 쓸 술을 담는다. 부정이 들지 않은 여인이라 함은 달거리를 하지 않고 지난 1년 중 큰 가축이나 사람이 죽거나 상하지 않은 여인 중 생기복덕이 길한 여인을 말한다.

4) 건립풍장 술을 담은 날부터 마을 풍장패와 일부 동민들은 거리제에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한 건립풍장을 시작한다. 건립풍장은 길나래비 1명, 대동계장 1명, 상쇠 부쇠 장고 북 징쟁이가 각1명이고 마을을 도는데 다른 마

을과 다른 점은 유사가 건립풍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사는 부정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문밖 출입을 삼가하여 집집마다 다니는 건립풍장은 함께 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 마을에서는 대동계장과 유사가 나란히 호별 방문을 하였다 한다. 추렴한 곡식을 지고 다니는 장정 지게꾼이 풍장쟁이의 앞에서 서는 것이 다르다.

1970년대 중반까지 행해지던 건립풍장은 지금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안택풍장의 고사 소리〉

부역 : 들왔네, 들왔네, 조왕님이 들왔네.

장독 : 들왔어, 들왔어, 칠성님이 들왔어.

우물 : 뚜르세 뚜르세 물구녕만 뚜르세.

마당 : 오셨네 오셨네, 성주님을 오셨네.

5) 장보기 대동고사에 쓸 진설(陳設) 관련 물품과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재료를 공주 장날 사오는데 정월 열사흘 이전의 공주 장날 물품을 구입한다. 다른 마을과 같이 신성한 일에 사용할 물품이라 하여 장사꾼이 부르는 값을 깎지 않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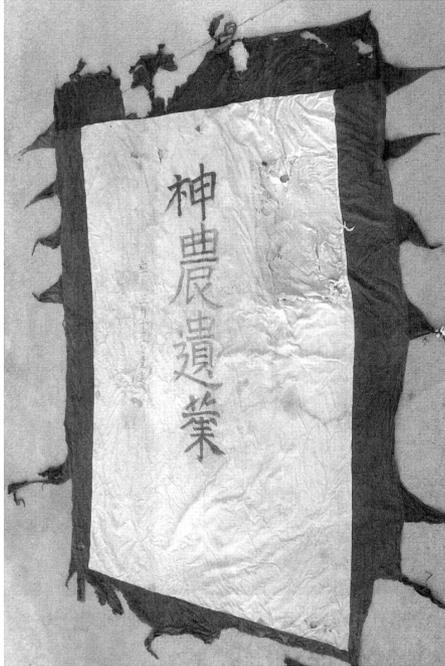
6) 장승백이의 청소와 장승 먹물 입혀드리기 정월 열나흘 새벽 짐승이 활동하기 전에 마을의 장정들과 유사, 대동계장이 장승의 터로 나가 청소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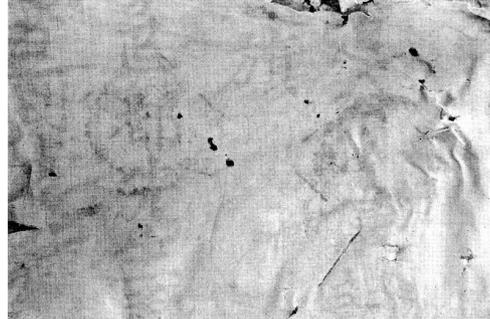
소박한 장승백이의 전경(지하여장군)

대동계장의 지도를 받아 유사가 장승에 먹물 그림을 그린다. 이 마을에서는 이 행위를 〈먹물 입혀 드린다〉고 표현한다. 먹물을 입히기 전에 기러기 장승을 세운다.

7) 고풍장 정월 열나흘 오전에 마을 앞 공터와 농기 주변에서 고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풍장을 친다. 풍장의 의미는 장승제를 지내기 위해서 기러기 장승을 세우고 먹물 입히기가 원만히 끝나 보름날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풍장이다. 풍장 가락이 차분하다.



한성부당상의 수결이 포함된 몸티의 농기



글씨와 관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농기 수결부분의 모습. 관인의 흔적이 붉은 빛으로 남아 있다.

8) 장승제 정월 보름 새벽에 유교식으로 올린다. 옛 시간으로는 인시(寅時), 현대의 시간으로는 새벽 4~5시 안에 올려지며 절차는 동네 고사. 유교식(儒敎式)으로 강신례(降神禮), 초헌(初獻), 봉축(奉祝),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순(順)이다. 부정한 사람은 구경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웃 마을 사람일지라도 타동 사람은 제례를 올리는 길을 왕래(往來)하지 못하게 하였다.

9) 대동소지(大同燒紙) 지하여장군의

장승고사를 지낸 자리에서 대동계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를 따지지 않고 호주 1명을 대표로 하여 가정의 무사태평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마을 소지는 제주가 올리고 나머지는 참여 제관 모두가 나누어서 올리는데 기원의 소리가 겹치지 않게 진행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주가 아닌 사람의 개인 소지도 올려준다. 소지를 모두 올릴 때쯤이면 날이 밝는다.

10) 샘고사 정월 초사흘에 물을 품은 동네 샘에서 올리는 고사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축원한다. 특별한 제물을 별도로 차리지 않고 장승제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의 제물(북어, 술)을 놓고 풍장꾼들이 풍장을 치면서 샘 주변을 돌 때 좌상, 대동계장, 유사가 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左) 농기를 보관했던 동물(洞物) 창고. 1974년 지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右) 1986년 마곡사 주지에게 글씨를 받아 만들어 현재 사용 중인 송학리 몸티두레 농기

11) **농기고사** 샘고사를 끝낸 제관들과 풍장꾼들이 농기 마당으로 이동하여 농기를 위한 고사를 올린다. 깃고사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당으로 별도의 음식을 마련하지 않고 마른 명태 한 마리를 흰 실로 묶어 농기에 매달고 작은 술상에 잔을 올리며 재배한다.

12) 뒷풍장 마을의 고사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풍장으로 농기 주변에서 시작하여 거리제 고사장을 돌아 농기 아래에서 끝난다.

13) 음복(복나눔) 고사가 끝난 후 치루는 음복의례로 제사에 사용한 술을 제주부터 참석한 동민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누어 마신다.

음복의 행사는 현재도 정월 대보름 마을 전체의 척사대회를 열어 웃을 높고 종일 풍장을 치면서 노는 보름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 **몸티 농기고사와 향나무제**

농기고사

몸티에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가 있다. 그것이 '벼슬한 농기'다.

벼슬한 농기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관료 중 마을(두레)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농기에 글을 쓰고 자신의 수결(手決)을 한 농기를 당해 고을의 관청 수장이 관인(官印)을 찍어 증명한 농기를 말한다.



수결 농기에 관한 증언과 향나무제를 만드는 중심역할을 수행한 유남희 씨

공주시에서는 계룡면 중장리에 영의정의 수결이 있는 농기가 있었고 정안면 석송리에 그 마을 출신으로 구한말 한성판윤(漢城判尹) 벼슬을 한 사람이 현식에 있을 때 고향 마을에 들러 수결을 하였다는 한성판윤 농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공주의 두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두레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반들의 입장에서 본 두레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마을 모두 농기가 훼손되어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중한 자료로서 존재가 분명한데도 유산으로 남아있는 물건이 없었던 벼슬한 농기가 송학리 1구 몸티 마을에 현존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 농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금 존재하는 농기는 신미년(辛未年) 정월(正月) 보름(十五日)에 증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노인들이 증건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871년에 증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농기는 증건 당시 이 농기 이전에 존재했던 수결 있는 농기의 수결 부분을 잘라 우측 상단에 손바느질로 피매 보존하였다.

일반적으로 농기의 수명이 길지 않아 100년을 지탱하기 힘든 반면 60년은 무난히 보존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결을 받은 것이 1770년 이후 183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벼슬한 농기는 그렇지 못한 모든 농기에게 절을 받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구전으로라도 누가 언제 수결을 한 것인지 전해질 법도 한데 전혀 기억하는 노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40~50자 정도의 글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수결문 중 18자는 비교적 선명하여 글자를 알 수 있으나 10여 자는 판독이 어렵고 나머지는 형체가 남지 않은 정도인데 밝혀진 글씨는 다음과 같다.

○○○○公州儀朗/面○○○旗/○○本邑
都先生善/定○○○○○○○○/○○○○○
○富/○○○丑/漢城府堂上 (수결) 이다.

남은 글자의 수가 적어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영의정 수결 농기의 경우 영의정이 호남으로 민심을 살피러 내려가던 중 마을의 부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보답으로 농기에 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성당상이 의량면 송학리의 도선생의 선정을 칭송하여 이 마을에 왔을 때 수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의량면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의당면으로 바뀐 점과 아직도 흔적이 확실한 관인의 날인 부분을 보면 조선조에 행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870년대 제작된 농기는 1986년에 이르러 중건하는데 1960년 두레의 소멸 이후 정월 대보름에 농기고사를 지낼 때만 농기를 사용하면서 수명이 길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986년 중건 농기의 글씨는 당시 마곡사 주지 스님에게 글씨를 받았는데 마을의 주민 중 한 분이 마곡사 주지와 친분이 깊어서였다 한다.

몸티의 농기고사는 앞서 말한 한성부

당상관 수결 농기로 인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동네 고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에 올려지는 농기고사에는 제물을 따로 마련하여 올렸다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마을과 사뭇 다른 형태다. 공주시 일원의 일반적인 농기고사의 형태는 대동고사로서 본고사(本告祀)가 아니라 부설적인 형태를 갖는다. 즉 장승제나 거리제를 지낸 후 농기에 별도의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술만 올리고 대동고사의 유사 등이 절을 올리는 정도다.

그런데 송학1리 몸티에서는 농기 앞에 상을 차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고사를 지내고 대동소지를 올렸다 한다.

그러나 이 농기고사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의 회오리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제례의 절차와 내용이 간소화 되어 지금은 향나무제를 지내고 농기고사를 올리는 다른 마을의 농기고사와 유사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대의(大義)따라 이도정신(吏道精神) 철저히 실천

清白吏 이 세 장(李世璋) 선생

(1497~1562)

이세장(李世璋) 선생의 자(字)는 도성(道盛)이요, 호(號)는 금강어수(錦江漁叟)로 1497년(연산군 3년)에 서울(고향은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에서 한재 이목(寒齋 李穆)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이 두 살 때인 1498(연산군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아버지 이목이 화(禍)를 당하여 선생은 홀로된 어머니 김씨(성종 때 참판 김수손의 딸)에 의해 외가(外家)인 공주 우성면 내산리에서 의(義)와 규범을 배우며 자랐다.

선생은 19세(1516년·중종11년)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37세(1534년·중종2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 장령(掌令), 부응교(副應教), 부제학(副提學), 도승지(都承旨), 호조참의(戶曹參議), 강원도 관찰사(觀察使) 등을 두루 거치면서 남달리 검소하고 청렴결백 하여 이도정신(吏道精神)을 철저히 실천해온 관리로 알려져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선생과 함께 청백리에 올랐다.

선생은 천성이 과묵했을 뿐 아니라 물욕과 사리(私利)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평생을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였다.

또한 시관(試官 : 과거장의 시험관)을 맡았을 때에는 나라의栋梁(棟梁)이 될 인재를 선발 하는 데 어느 시관보다도 치밀하고 엄정하

게 뽑았다고 한다.

선생은 관직에 있으면서 세 번에 걸쳐 경차관(敬差官) : 임시로 지방에 파견되는 벼슬로 주로 양곡의 손실 등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음)의 명을 받았고,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할 때 민정을 살피 바로잡은 것을 비롯하여 다섯 번이나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그 책임을 완수하는데 청렴결백과 대의에 입각한 처리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주위의 찬사(讚辭)가 높았었다.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한양으로 돌아갈 차비를 차리고 있을 때, 『여기(강원도)서 입고 있던 관복은 강원에서 지은 것이니 벗어 놓고 가야한다.』고 부인에게 말하면서 한양에서 올 때 입고 온 옷을 꺼내게 하여 갈아입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한양으로 돌아오는 도중, 문막(文幕) 근처 산 고개에서 일행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부인 옆에 놓인 물레를 발견하고는 『그 물레는 어찌된 것이오?』하고 부인에게 물었다.

『그 동안 쓰고 있던 물레입니다. 무명길쌈에 자주 쓰는 것이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양에서 가져 온 것이오?』

『한양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만든 것입니다.』

『강원도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니 여기에 두고 가시오.』

우성면 내산리에 있는 선생의 碑와 괴석



부인은 물레가 가까웠지만 선생의 뜻을 따라 하는 수 없이 버리고 왔다하여 그 고개가 『물레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부인 역시 선생의 겸소한 정신을 본받아 직접 물레를 돌리며 실을 뽑고 무명길쌈으로 옷도 손수 지었음은 물론이다.

선생 등 일행이 강원도 땅을 뒤로 하고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에서 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고 반쯤 건넌을 무렵 선생은 일행을 돌아보고,

『이제 이 배만 내리면 경기도 땅인데 강원도 물건이 혹시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아라.』하고 말하자 일행 중 한 사람이

『관찰사께서 들고 계신 부채가 강원도 물건입니다.』하고 말하니

『그렇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 했구나. 잘 일러 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선생은 들고 있던 부채를 강에 던졌다.

이 강을 또한 투선강(投扇江 : 부채를 던진 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선생은 노후에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선들 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때 낚시로 소일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선생은 성장하면서 당대의 석학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수제자였던 부친이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화를 입는데 충격이 컸었던 듯하다.

19세에 이미 진사가 되었음에도 37세가 되어 서야 뒤늦게 문과에 급제한 것도 한 때는 관(官)이나 정계에 나서지 않고 초야에 묻혀 세상을 조용히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았으며 흥문관 부제학으로 있으면서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수관까지 겸했던 선생의 문집(文集)이 한 권도 전해 내려오지 않음은 혹시 후손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화(禍)를 염려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선생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 또한 극진하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60이 넘은 몸으로 산소 옆에 묘막(墓幕)을 짓고 기거하던 중 병까지 얻어 늙게 되었다.

선생은 결국 병으로 앓다가 1562년(명종 17년) 2월 29일에 세상을 떴으니 향년 66세였다.

명종(明宗)께서도 어질고 청백하던 신하의 죽음을 슬퍼하여 예관(禮官)을 시켜 조문하고 제문(祭文)과 부의를 보냈다고 한다.

선생의 묘소는 처음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에 있었으나 외조부께서 소유했던 임야 중 일부를 떼어 선생에게 주었던 무성산록(茂城山麓 : 우성면 내산1리 경사동)으로 후에 이장되어 현재 어머니와 선생 내외 그리고 소자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경사동 마을 입구에는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 : 인조 때 정승)이 지은 묘갈문(墓碣文)과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선생의 어진 마음씨와 선정을 베푸는데 대한 보답으로 강원도 사람 들이 목도에 운반해 왔다는 괴석(怪石)이 서있다.

이 괴석은 관찰사, 시절 정원에 모양이 하도 괴상하게 생긴 돌이 놓여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만져보고 마음속으로 아껴 오던 것으로, 어떠한 물건도 일체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선생의 청백함을 알고 있는 강원도민 들이 “설마 돌까지 거절하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선생이 모든 관직에서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던 공주까지 운반해 온 것으로 묘소를 이장할 때 함께 옮겨 온 것이라고 한다.

민족 고유의 전통 심신 수련법

국선도



국선도란 무엇인가?

산중에서 비전되어 오던 민족 고유의 수행법을 청산선사가 공개한 깨달음의 정신도법이다. 몸으로 갈고 마음으로 닦아 무병하고 장수하는 생활인의 도법이며 극치적인 건강법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 몸이 활기차니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여 자신감이 넘치고 가슴이 너그러워 의욕이 샘솟게 된다.

종교나 이념, 사상과는 무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신수련의 단전호흡, 기, 명상법의 수련체계이다. 늙으면 왜 약해지는가? 국선도인은 늙을수록 건강하며 정렬 적이고 총명한 노익장을 발휘하게 된다.

국선도의 유래

국선도의 역사는 아주 오래다. 수련법이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다. 국선도의 스승들이 밝히기로는 그 역사가 무려 9천 7백여 년에 이른다고 한다.

옛 기록들에 따르면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삼황(三皇) 중 한 사람인 황제(黃帝)가 「청구」 땅 공동산에서 「자부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청구」는 우리 겨레가 세운 나라였고 자부선인은 청구국의 유명한 큰 스승 이었다.

황제가 와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아득한 옛날의 우리나라에는 바른 도(道)가 널리 펼쳐졌다.

수련효과

※ 일반적인 효과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 본래 부여받은 하늘의 성품과 생명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건강한 몸과 심성과 기질을 선택하고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변화시켜 지인용이 겸비된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덕을 베푸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일상생활에 피로함이 없이 항상 맑은 정신으로 좋은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상쾌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이 충만해 지며, 비만증이나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의 성인병 치유와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또 수련을 하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고, 항상 맑은 기혈을 유지시켜 주고, 생식기능이 강화되어 이상적인 건강상태를 지켜 나갈 수 있다. 안정적인 심호흡에 따른 뇌파와 심파가 안정된다.

※ 수련초기의 변화

수련을 하고나면 기분이 상쾌하며, 몸이 가볍게 느끼고 유연하다. 발걸음도 가볍고, 잠이 잘 오고 깊은 잠에 든다. 대소변이 순조롭고 소화가 잘 되며 시장기를 쉽게 느낀다(이 경우에도 식사량이 느는 경우 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트림 또는 방귀가 자주 나온다. 손과 발에 윤기가 나고 따뜻해진다. 맥박이 고르고 정상적으로 뛰는다.



〈국선도 수련의 목적〉



공주문화원 국선도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월·수요일 오후 7시~9시

강의내용 : 국선도를 통한 심신수련

강 사 : 이 규 호(세계국선도연맹(천선원) 이사)



2009년은 개화결실(開花結實)의 해

- 이준원시장, 새해 역점시책 밝혀



2009 공주시정은 “힘찬도전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해 지난해 뿌린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대고 비료를 주는 관수시비(灌水施肥)의 기간이었다면, 새해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개화결실(開花結實)의 시기로서 착수한 사업들을 세련되고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입장에서 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준원 시장이 밝힌 중점사업으로 첫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도록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범마을에 대한 자립 경영을 유도하고 주변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 전역에 파급시켜 나가면서 마을별 특성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주말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 휴식, 체험 등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2010년 대백제전 개최에 맞추어 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마아트센터 등 대백제전 메인행사장과 공예공방촌건설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은 체류형 체험숙박시설인 온돌숙박촌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으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셋째, 「공주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구도심 건물외벽 목조 리모델링 사업은 간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국고개 가로경관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중동사거리 일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가로등, 난간, 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시를 상징하는 색채와 문양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도입하고, 축대, 옹벽 등은 성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도시정체성 부각
공주 디자인 프로젝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
시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곽이미지를 부여하여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며, 마을회관, 공공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은 명품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며,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추모공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청정한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섯째, 시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살고 싶은 공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와 생태하천 복원, 자전거 도로 확충, 그린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공주의 미래발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공모 제안을 받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며, 농민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공주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품종을 선정하여 대규모 명미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직거래 유통사업단을 통해 단일브랜드로 유통시킴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주시, 2009년 예산 4,513억원 규모

2008년 3,987억 원보다 13.2%, 526억 원 증가



이준원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주시의 2009년도 예산이 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공주시는 지난 12월 2일, 2009년 예산안을 2008년 당초예산인 3,987억 원보다 13.2%, 526억 원 증가한 4,513억 원 규모로 편성해 공주시의회에 제안 설명 했다고 밝혔다.

시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3,986억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577억원 보다 11.4% 늘어난 것으로, 특별회계는 476억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60억 원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시장 공약사항과 지역현안사업을 망라한 6개 부문 50개 역점사업에 808억 원을 편성했으며,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비로 56억 원을 계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20억 원, 2010 대백제전 기반조성비 45억 원,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111억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 32억 원, 신관공 공하수처리시설 30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926억 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정주기반확충·영농활동 지원 등 농림개발분야에 12%인 531억 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10%인 466억 원을 편성했다.

공주시, 전국 최초의 오픈마켓 형태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주시민 모두가 “사장님”이 되는 그날까지...



공주시는 오는 3월까지 총 2억원을 들여 오픈마켓 형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4월초 오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도는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지역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존 타 지자체에서 도입·운영중인 위탁판매의 경우 운영비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폭넓은 상품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비롯됐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관리방식에서 시는 통합된 도메인에서 모든 상품 및 입점업체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지원하고, 개별 판매자는 상품등록 및 주문, 배송관리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새로운 통합 도메인 외에도 기존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와 연동을 추진,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재로그인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효과적인 운영과 신뢰구축을 위해 입점기준, 품질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으며, 불량고객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공주시, 채호규 부시장 취임

- 위대한 공주 건설 위해 혼신의 노력 경주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충남도 인사에서 공주시부시장으로 발탁된 채호규(蔡昊奎) 공주시부시장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이준원 시장을 적극 보필해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채 부시장은 “30여간 공직생활로 같고 닮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주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 중심의 행정,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정 수행과 당면한 현안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령 출신인 채 부시장은 행정직 7급 공채출신으로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충청남도청 정책총괄담당, 기획담당, 과학산업과장, 복지정책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공주시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 탄력

36억원 투입, 2009년 6월말까지 경관창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 설치



국고개 문화거리 조감도

공주시는, 옥룡동·중동·반죽동 일원의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009년 6월말까지 36억 원을 투입, 독특하고 미려한 경관창출, 충남역사박물관 주차장 광장화, 향토 특성을 지닌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내용을 밝혔다.

옥룡사거리~충남역사박물관~공주우체국~구읍사무소에 이르는 1.2km에 설치될 문화거리는 중동성당·충남역사박물관 등 근대 건축요소와 어우러지는 독특하고 미려한 경관을 창출키로 했다.

또,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조성되는 충남역사박물관 주차장과 인근 도로를 광장화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순조로운 마무리

총 60억 원을 들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 확충

지난 2008년 3월부터 총 60억 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면) 사업이 순조로운 마무리 공사를 보이고 있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주면 사업은 마을기반 정비, 농촌도로 정비, 생산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 재해방지시설 등 5개 사업으로, 2008년 12월 까지 계룡면, 장기면, 우성면 등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마친 상태다.



재해방지시설

이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주시의 계획적인 추진의 결과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에는 이인면, 정안면, 신평면의 정주면 사업의 완료가 예정돼 있는 등 지역 8개 면의 정주면 사업을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사랑담긴 연탄 배달

이미 3,000장을 전달하고 오는 4월까지 8만 7,000장을 전달

공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저소득 가정에 사랑이 담긴 연탄 배달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9만여장을 확보, 이미 3,000장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4월까지 8만 7,000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특히, 지급되는 연탄을 하차장에서 좁다란 골목골목에 위치한 대상가정에 직접 운반해 가지런히 쌓아주는 한편, 수혜가정의 마당과 집주변을 말끔히 청소해 주고 연탄 보일러시설도 꼼꼼히 점검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의 공직자와 함께하는 연탄 나눔행사, 자원봉사단체, 기업체와 함께하는 연탄 나눔 행사가 저소득층의 월동대책에 만반의 대비를 다할 예정이다.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 개소식



지난 11월 27일 오전 11시, 의당면 청룡리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장애인복지센터는 총 13억 1,000만원(국비 5억 2,0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902㎡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이곳에 입주한 단체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지회, (사)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부, 공립 곰두리 어린이집 등이다.



뗏목마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선정

“행안부, ”농촌배경 활용한 효과성과 창의성 돋보여”



공주시는 탄천면 대학2리 뗏목체험이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 출품돼 전국 38개 우수마을에 선정됐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주시는 이번 콘테스트의 참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을별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 탄천면 대학2리 상설 뗏목체험

마을, 반포면 상신리 도예체험마을, 우성면 한천리의 홍길동 전래동화마을, 신평면 선학리 지게놀이 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 2,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콘테스트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탄천면 대학2리 뗏목마을은 뗏목체험을 통해 체험객수 7,000여명, 농산물직거래 판매실적 5,600만원, 체험료 및 기타소득으로 4,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장보기가 즐거워요

“저렴한 가격, 뺑 뚫린 교통 여건”

공주시가 지난 11월 26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오후 1시부터 산성시장에서는 색소폰 공연, 통기타 연주, 노래자랑이 열려 시민들에게 장보는 즐거움과 함께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이와 같은 인기는 최근 산성시장 내 노점상인들이 비가림 시설내로 입점함에 따라 차량소통이 원활해져 깨끗하고 산뜻한 장터거리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241대가 주차가능한 산성 공영 주차장이 준공돼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넓은 주차시설과 대형마트보다 19% 이상 저렴한 가격이 한몫을 했다.



신풍면 대룡1리, 무르실 김장김치 축제 열려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맞아 도시민이 참여하는 이색적인 무르실

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서울의 전곡초등학교 학부형 30여명이 김장담그기 체험행사에 참여해 농촌과 도시민이 참여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홍고추 및 풋고추, 고춧가루 등을 축제에 참여한 도시민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김장김치 축제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신풍 풋고추의 명산지이자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인 신풍면 대룡1리 마을에서 열렸다.

이 축제의 첫날인 29일에는 배추 뽑기, 골파 뽑기, 배추 절이기 등 김장을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둘째 날인 30일부터 만남의 시간, 맛있는 김장담그기 행사와 함께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



공주, 청국장으로 아시아 입맛 사로잡는다

무령왕네트워크 가라츠음식축제 참가 '호응'



가라츠 음식축제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대 성황을 이뤘다.

공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요리팀 2명을 비롯해 전통음악단 10명, 인솔단 4명 등 16명이 참가, 공주시 및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와 농·특산품 판매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는 공주를 비롯해 여수·부산 등 3개시에서 참가해 여수는 육계장을, 부산은 떡볶이 요리를 선보였다.

일본 가라츠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가라츠 음식축제는 일본 3대 음식축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 지원 없이 민간주도 축제로 개최,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민간단체에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주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정영일)가 지난 12월 7일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에서 열리는 ‘가라츠 아시아음식 축제(나베마츠리)’에서 청국장과 전통음악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매년 12월에 ‘가라츠 음식축제’를 주관하는 가라츠 상공회의소가 참가를 요청해



가라츠 아시아 음식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청국장을 홍보하고 있다.



연정국악원 단원들이 환영 리셉션에서 우리가락을 연주하고 있다.



고품질 공주알밤 가공 상품 탄생, 농가소득 쑥쑥

공주시는 지난 12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고품질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알밤단자 등 새 상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가공 상품은 알밤단자, 알밤양갱, 알밤 초콜릿, 알밤과자(울과) 등이며, 공주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살려 밤모양과 곰모양, 와당모양의 디자인을 갖춘 게 특징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는 밤의 기능성 검증을 실시했는데 밤껍질에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는 물론 지질대사 개선, 항혈전 예방능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공주시는 이번에 개발된 알밤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꾀해 공주알밤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공주시의 특산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공주알밤을 활용한 고품질의 가공 상품 탄생,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부간 화합의 한마당 열려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참사랑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지회장 방재천)는 지난 11월 26일 공주웨딩프라자에서 최근 핵가족화하는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초청, 2008년 고부간의 사랑 큰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140여쌍의 고부들이 모인 가운데 위안공연, 모듬북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사곡면에서 온 며느리는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농사걱정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 새마을운동공주시지회와 시에 감사를 드리며 이런 기회가 한번이 아니고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악공연, 민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부간 결속을 다질 기회가 되었다.



공주시,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집중 행사에 각계각층 손길 이어져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행사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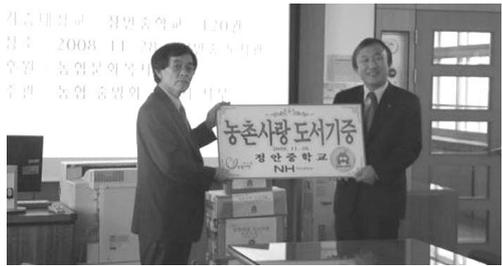
12월 12일 공주시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 모금행사가 열려 유치원 어린이부터 칠순노인에 이르기까지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금행사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 사회단체, 시민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6,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현재까지 5억 4,045만원이 답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 4,341만원보다 4,0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16개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시민의 발길이 줄을 이어 연말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분위기를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협문화복지재단, 정안중에 도서기증

공주 정안중학교(교장 민원동)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금동도서관에서 농협중앙회 김영만 공주시 지부장과 전승태 정안 농협장이 참관한 가운데, 2008학년도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마련한 120권의 도서를 정안중학교에 기증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2008 농촌 학교 도서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기증식에서 김영만 지부장은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책을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독서를 통해 큰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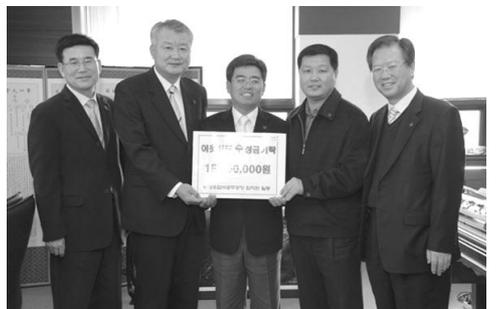
민원동 교장은 "소중한 꿈을 기증해 주신 농협중앙회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서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이웃사랑 성금 1,800만원 기탁

공주시 장기면에 소재한 남양유업 공주공장(공장장 곽주영)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 1,800만원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날 성금은 남양유업 공주공장 직원들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의미가 더더욱 높게 평가된다.



곽주영 공장장과 이형섭 노조위원장이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공주시 기업인들 온정의 손길 이어

웅진코웨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공주시 유구읍 소재 웅진코웨이 김동화 웅진코웨이 팀장은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아세아산업개발(주)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에 소재한 아세아산업개발(주) 고규환 대표는 12월 12일 오전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고 대표와 서효원 전무이사, 장승백 이사, 양윤배 장기면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평풍토건 정총희대표 성금 500만원 기탁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소재한 평풍토건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공주시는 이 성금을 충남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불우이웃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공주지점,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 기탁

국민은행 공주지점(지점장 양희대)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농협중앙회 '희망 2009 이웃사랑' 백미전달

농협중앙회 공주시 김영만 지부장이 지난 12월 12일,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불우한 이웃에게 써달라며 백미 10kg짜리 100포(시가 220만원 상당)를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정성이 가득한 목화이불 덮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신품면의 목화꽃동산에서 수확한 목화솜으로 이불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신품면사무소는 지난 12월 11일 김병렬 신품면장을 비롯해 이장단, 새마을협의회원과 함께 신품면 용수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강신찬 씨(81세) 등 지역 불우이웃 6명을 찾아 위로하고, 목화이불 6채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물한 이불은 지난 봄 신품면사무소가 공주시의 역점사업인 5도2촌 주말도시의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잡초만 무성했던 산정리 국도 32호선 도로변 2,000㎡ 공터를 목화 꽃동산으로 조성해 가을철 수확해 만든 것이기에 더욱 의미 높게 평가된다.

공주소방서, 사랑의 119봉사활동 효심의 집을 방문 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

공주소방서 신관119안전센터(센터장 김번태) 대원들은 반포면 공암리 효심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및 떡, 음료수를 함께 나누며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노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복지시설 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또한 노인분들의 혈압체크 등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겨울철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비상구 및 소방시설 점검 등 시



설 곳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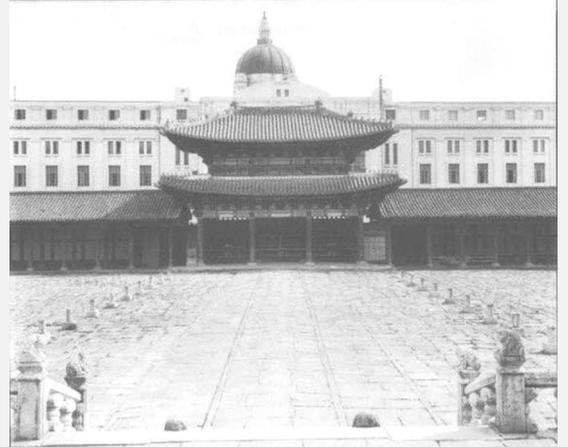


사진으로 다시 보는 조선시대 궁궐

2008 국립공주박물관 기획특별전 / 2009년 2월 8일까지



경복궁의 내전과 외전 일대 (1916년 이전)



경복궁 근정문과 조선총독부 청사 (1929년)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방룡)은 2008년 세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궁궐 사진전'을 지난 2008년 12월 9일 개최로 2009년 2월 8일(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2007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부산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공주에서 열리는 것이며, 서울 전시 당시 연인원 52,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할 만큼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경복궁을 비롯하여, 창덕궁·창경궁·경희궁·덕수궁 등 여러 궁궐이 지어졌고 왕조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조선왕조가 국권을 빼앗기면서 이러한 궁궐들은 제 기능을 잃게 되었고, 일제(日帝)의 철거와 훼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궁궐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궁궐들이 옛 왕조의 잔영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 흑백사진전 열려

향토작가 김혜식씨 30여점 전시

김혜식의 ‘판’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사진전이 2008년 12월 12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11일까지 공주시 중동에 있는 충남역 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전시되었다.

“시장판, 놀이판, 극판, 사랑판에 살판나기까지 판 아닌 삶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는 ‘판’을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했다.

김 작가는 그동안 2회에 걸쳐 공주사람들의 생생한 표정을 담은 개인전 ‘공주 이야기’ (2004·2006)를 가진 바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공주미술제에 초대 출품해 왔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장군 오셨네

12월 18일 문예회관 대강당서

백강은 귀놈이다
부러진 창끝 맨몸으로 일어난
오늘도 백강은 하늘이다
정말인 것 같다
조금 설수원만 깰듯 김해 모여
타오르며 발진
광활한 저쪽엔 어린식물도
제 오르지 못하
이 살아지는

녹두장군 오셨네

2008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공주문예회관 대강연장
주최 / 주관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Ticket | S석 10,000원 A석 7,000원 공연문의 | 공주문예회관 041-840-2467
공연예매 | 공주문예회관 <http://acc.gongju.go.kr> *만 6세 이상 입장가

동학혁명 때 농민항쟁 주역으로 봉기하다 희생된 녹두장군 전봉준의 일대기가 무대에서 다시 태어났다.

지난 12월 18일 저녁 7시30분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가 주최·주관하고 공주시 의당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논두렁 발두령과 최선 무용단원이 출연하였다.

이 공연은 제1막 멍석자리, 2막 칼바람, 3막 뉘이여 뉘이여, 4막 되남 - 통일 염원의 대동마당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주에서 '호두까기 인형' 공연

12월9일 문예회관서 벨로루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지난 12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벨로루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앞두고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총 400여회 공연과 50만 관객을 동원, 신기원을 달성한 호두까기 인형은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전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콤비인 마리우스 프티파와 차이코프스키가 탄생시킨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공연을 연출할 발렌틴 옐리자리에프는 벨로루시 국립 발레단의 단장 겸 예술총감독으로 21세기 최고의 무용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어 더더욱 기대를 모았다.

신비스러운 동화의 화풍이 돋보인 화가 사갈의 나라인 벨로루시 국립발레단은 볼쇼이, 키로프와 함께 러시아 3대 발레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20여명의 스타급 무용수와 100명에 가까운 발레단원, 인민배우, 공훈배우들, 국가발레대회 수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2008년, 22주년을 맞은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다.



제7회 공주민요발표회 ‘국악한마당’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름다운 우리민요의 향연 ‘국악한마당’이 2008년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표회는 흥과 신명이 넘치는 옷다리 풍물을 시작으로 12잡가 중 머리곡을 장식하는 유산가, 금강산타령, 뱃노래 등으로 펼쳐졌다.

흥겨운 우리민요와 춤이 한데 어우러진 이번 발표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주서 ‘제1회 웰빙약초축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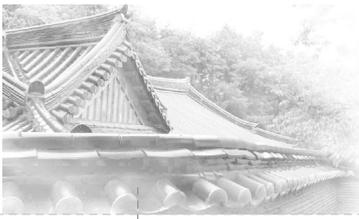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약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제1회 공주 웰빙약초 축제’가 지난 11월 22일 약초마을인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풀꽃이랑마을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오전 10시 약재 다리는 가마솥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을 알렸으며, 약초 썰기와 약초 다리기, 장터음식 맛보기, 떡메치기, 송편 만들기, 밤껍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또 이 마을 특산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정안밤 시식회와 현장에서 쌀 및 콩 튀겨 먹기 등 옛 추억을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제기차기와 밤송이로 풍선 터뜨리기, 굴렁쇠 굴리기 게임 등이 펼쳐졌으며, 입상자에게는 약초와 정안밤 등 마을 특산물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이 밖에 축제장 한편에선 알뜰장터가 열려 정안밤과 서리태, 절인배추 등이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됐다.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이문하(李文夏)의 “길”展 개최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에서는 우신(又新) 이문하(전·공주교육장)선생을 초대하여 이문하의 “길”전을 지난 2008년 12월 12일 오후 3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8일간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우신 이문하 선생은 영문학을 전공하여 일선에서는 영어를 지도 하였으며, 공주교육장을 비롯하여 충남교육연수원장, 일선고등학교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문학과 미술 분야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지난 2월 교육계를 정년하면서 수필집 “남이 알까 무섭다”를 간행하였으며, 틈틈이 그린 유화는 전문가도 높이 평가할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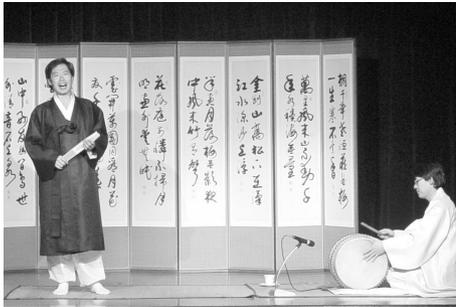
한편, 이문하 선생은 “정년 직후, 종전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훌훌 털어 내고 자유롭게 창조적인 일로써 자신을 바꾸기 위해 우성면 한천리 우신재(又新齋)에서 호젓한 오솔길을 화폭에 옮겼으며 미흡하지만 그 결실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온 선생의 평소 마음처럼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판매한 수입금 전액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 졌다.





공주문화원 주최, “예인촌” 마흔 일곱 번째 정기공연 박성환선생의 소리판 “수궁가”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회장 최선)이 주관하는 예인촌 마흔 일곱 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2008년 12월 19일 오후 7시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공연은 우리 지역출신이며 판소리의 새로운 창작공연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리꾼 박성환 선생을 초청하여 판소리의 참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는 장으로 펼쳐졌으며, 이번 공연에 불러진 “수궁가”는 동편제 유성준 바디로써 정광수에 의해 이어진 것을 박성환선생이 전승한 소리이다.



박선정씨가 특별출연으로 부채선조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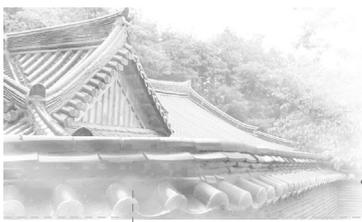
제12회 (사)한국국악협회충남 공주지부 학생국악경연대회 및 정기연주회

(사)한국국악협회충남공주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사)한국국악협회충남공주지부 학생국악경연대회 및 정기연주회가 지난 2008년 11월 26일(수)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전9시 학생국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오후7시에는 정기연주회를 선보였다.

전통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보급을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는 공주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및 개인부문으로 사물, 기악, 성악의 3종목으로 경연을 벌였으며, 정기공연에는 시조, 부채춤, 민요, 살풀이, 윷다리 사물놀이 등을 선보여 우리 국악의 흥과 멋을 한껏 만끽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08 공주시, 효 장학증서 및 표창장 수여식



공주시 효 장학회가 주최하는 장학증서 및 표창장 수여식이 지난 12월8일(월) 오후 2시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및 교사, 학부모, 수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효 장학회(이사장.이화영)가 지급한 효 장학증서 및 표창장은 초등학교생 김근수 외 20명, 중학생 오현경 외 9명,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 15명 총 46명에게 전달되었다.

제1회

전국남녀 내포제시조 명인명창 공연창 및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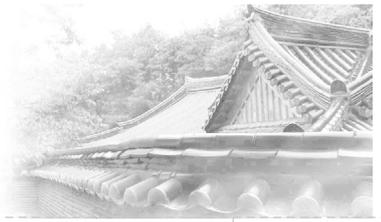
세속의 변화에 따라 시조를 기피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조문화를 주입하겠다는 각오로 개최 하게 된 제1회 전국남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가 내포제시조 공주시지회(회장 윤석조) 주최, 주관으로 2008년 12월 23일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내포제시조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시조창으로 음계는 처절한 느낌을 주는 3음의 계면조와 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5음의 우조로 되어 있으며, 장단은 약기 없이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일시적 연주를 하는 등 그 독특한 창법으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우리지역 고유 의 대중음악이라 할 수 있다.

수상에는 학생부 개인전에 부여음 김동해 학생과 홍성음 정지성 학생이 금상을, 학생부 단체전에는 염명희씨가 지도하는 아산시 하늘선 어린이 합창단(9명)이 금상을 차지했다.

일반부 평시조, 사설 금상에는 홍성음 정양옥씨, 일반부 질음시조 금상에는 청양읍의 김기상씨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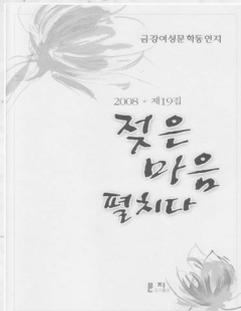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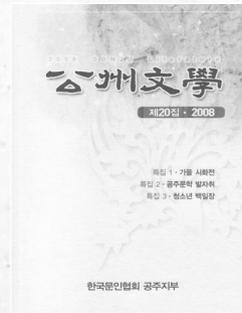
신간소개



公州文學 2008년 제20집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

공주문학 제20집이 회원들의 정성스런 내용을 담아 발간되었다. 1988년부터 발간하여 20번째를 맞은 이번 책자에는 '함께 물든 잎이 곱습니다' 라는 신현보 회장의 머리말로 시작하여 찾아가는 시화전, 공주문학발자취, 시, 수필, 청소년백일장 등이 실려 있다.



젖은 마음 펼치다 2008년 제19집

금강여성문학동인지

공주 여성 문인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또 다시 꽃을 피워 금강여성문학동인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제19집 '젖은 마음 펼치다'가 발간되었다.

公州女性文學 2008년 제13집

공주여성문학회

공주지역 문학여성모임인 '공주여성문학회' 회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13호가 발간되었으며, 더불어 오랜 숙원이었던 시화전을 공주문화원에서 동시에 개최 하였다. 공주여성문학은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담긴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고마나루 세 번째 이야기

공주시 시립도서관

공주시 웅진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이끌어 온 웅진어머니독서회원 작품과 독서진흥공모전 수상작, 독서교실 글모음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시민들의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한 작품을 모아 '고마나루 3집'을 발간했다.

櫻山公園의 쉼

조명래 · 허보인 부부의 발자욱 소리

조명래, 허보인 부부의 삶과 소리를 담은 시, 수필 등 손주들의 재롱 섞인 시 등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어 '앵산공원의 향'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